

		보도자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6월 9일(목) 총 3매		
담당 부서	인사과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개발팀장 홍순미 ☎ 440-3111 • 담당자 장아영 ☎ 440-311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9회 인천 공직자 아카데미 9일 개최
디아스포라를 품은 도시, 인천
- 한국 이민사 120년 기념,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와 포용 당부 -

인천광역시는 9일 「디아스포라를 품은 도시, 인천」을 주제로 ‘제59회 인천 공직자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강연자로 나선 김상열 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장은 우리나라 첫 공식이민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국내정세와 1902년부터 1905년까지 하와이로 이주한 7,000여명의 한인들의 삶을 인천시 공직자들과 함께 나누었다.

또한, 전 세계에 뿌리내린 재외동포 사회의 형성과정과 모국 공헌 등 다양한 이민의 역사를 설명하며, 재외동포를 이해하고 포용의 자세를 갖추기를 당부했다.

정명자 시 인사과장은 “인천은 이주와 이민의 중심지였으며 특히 올해는 1902년 한국 최초의 이민선이 인천항에서 하와이로 떠난 지 120

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강연을 통해 인천시 공직자들이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거시적 안목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한국 이민사 12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022세계한인회장 대회 및 제16회 한인의 날 기념식(10월 중·송도컨벤시아/재외동포재단 협업사업) ▲사진으로 보는 디아스포라 120년 전시회(10~11월 중·한국이민사박물관) ▲디아스포라 현대미술전(9~11월 중·인천아트플랫폼) ▲하와이 이민 120주년 기념행사(12월 중·하와이)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 공직자 아카데미는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공직자 역량 개발을 통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통·협치 ▲지속가능·시민행복 ▲혁신성장·4차 산업혁명 ▲인문학·국제정세 등 다양한 주제로 저명한 명사를 초빙해 2019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 관련 사진은 10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붙임> 홍보포스터 1부. 끝.

제59회 인천 공직자 아카데미

디아스포라를 품은 도시, 인천

이민, 인천에서 비롯되다

우리나라 최초 공식이민 120주년 기념



김상열 관장

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장

장소 인천광역시청 공감회의실

일시 2022. 6. 9. (목) 08:00 ~ 09:30 **LIVE**

